

제 17회 세계잼버리 참가자 조사연구

최 현*

- I. 서 론
- II. 프로그램 평가와 한국에 대한 인식
- III. 각국의 청소년 정책
- IV. 평가 및 기본계획에 대한 시사

잼개발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각국의 청소년 의식조사 및 프로그램진행 등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내용

제 17회 세계잼버리대회는 1991년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8박 9일동안 강원도 고성군 대회장에서 개최되었다. 133개국에서 2만여명이 참가한 이 대회는 역대 잼버리행사 중 최대의 규모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연구는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현재 연구 중에 있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 각국의 최근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은 각국의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상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행사현장에서 외국 청소년이 선호하는 활동분야, 잼버리 프로그램 스케줄, 프로그램 시설, 지도력, 홍보, 사용경비, 주위환경, 외국 청소년들의 한국 및 한국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을 갖춘 설문지를 가지고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각국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설문지를 가지고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미비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자에게 직접 인터뷰도 실시하였고 8월 21일 민박참가자를 대상으로 내용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조사대상국가는 17개국으로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실장

미주지역의 캐나다, 미국, 브라질, 유럽지역의 프랑스, 영국, 스위스, 홀랜드, 소련, 오세아니아주의 호주와 뉴질랜드, 아시아의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짐바브웨로부터 지도자 70명, 대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각각 약 50%, 42%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중 데이터 크리닝 과정에서 많은 설문지가 삭제되어 실제 사용가능한 설문지는 각각 전체 설문지의 약 43%, 32%에 그쳤다.

수집된 자료는 퍼스날 컴퓨터에 내장된 SPSS-PC+ 프로그램을 가지고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II. 프로그램 평가와 한국에 대한 인식

1. 선호하는 활동분야

잼버리대회에 참가한 외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청소년이 현재까지 참여해 왔던 활동분야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 가장 선호하고 있는 분야,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활동에 참가해 왔던 분야로 나누어 의견을 조사하였다.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

이 나타났다. 즉, 전체 분석대상자 가운데 70.8%가 응답하지 않았으나, 전체분석대상자의 19.8%(63명)이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의 67.7%가 되는 청소년들은 스포츠를 두드러지게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문학, 서비스, 민속, 과학, 예술, 현장실습, 에티켓분야는 전반적으로 낮은 분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무응답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스포츠를 가장 중요한 분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년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분야나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도 무응답이 많이 있었지만 각각 전체 분석대상자의 14.2%, 15.1%이며 응답대상자의 50.0%, 53.3%인 외국청소년들이 스포츠분야를 가장 선호하면서도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외국 여러국가의 청소년들은 스포츠분야를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좋아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스포츠분야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나타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균형있게 육성시키기 위해서 스포츠분야 이외에 문학, 서비스

<표 1>

청소년들의 활동분야에 대한 선호도

	스포츠	문학	서비스	민속	과학	예술	현장실습	에티켓	무응답
중요도	19.8	0.9	1.9	1.9	0.9	1.9	0.9	0.9	70.8
선호도	14.2	—	1.9	1.9	6.6	1.9	1.9	—	71.7
참여도	15.1	0.9	2.8	2.8	—	1.9	4.7	—	71.7

스, 민속 등의 분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의 필요 및 청소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2. 잼버리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잼버리대회에 대한 평가는 5개의 등간척도를 사용하여 잼버리 프로그램 스케줄의 적합성,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사용된 시설의 적절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력의 평가, 프로그램 홍보의 적절성, 프로그램 시설사용료에 대한 평가, 환경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1) 프로그램 스케줄

프로그램이 잼버리대회에 참석한 외국청소년들에게 적합하게 짜여져 있는지의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전체 분석대상자의 28.3%인 90명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많은 만족」이 26.4%, 「매우 만족」이 22.8%, 「조금 만족」이 15.1%, 「불만족」이 9.4%의 순으로 나타나 77.5%의 외국청소년들이 잼버리 프로그램 스케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청소년들은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아침에 너무 일찍 시작하고 밤에는 너무 늦게 끝난다, 더 많은 자유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응답을 하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청소년들은 “자기 스스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2) 프로그램 시설

프로그램을 위해 마련된 시설에 대한 외국청소년의 흥미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는 「매

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전체분석대상자의 29.2%인 93명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만족한다」가 24.5%, 「많은 만족」이 18.9%, 「조금 만족」이 16.0%, 「불만족」이 11.3%로 나타나 역시 마찬가지로 70%이상의 청소년들이 시설에 대하여 높은 흥미를 느꼈다.

그러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은 “한 그룹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스포츠 운동장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지루하다, 날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3) 지도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용된 지도력에 대한 평가는 「많은 만족」이 전체 응답자의 30.2% (96명)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만족」이 24.5%, 「매우 만족」이 18.9%, 「불만족」과 「조금만족」이 똑같이 13.2%의 순으로 나타나 70% 이상의 많은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들은 대부분이 “지도자들이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4) 홍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될 수 있게 프로그램이 공지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는 「만족한다」가 28.3%(90명)로 전체 분석대상자 중에서 가장 높게 분포하였으며, 「많은 만족」이 22.6%, 「매우 만족」이 19.8%, 「불만족」이 15.1%, 「조금 만족」이 14.2%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30% 정도의 응답자들이 “프로그램을 알리는 적절한 표지판이 없다”

<표 2>

외국 청소년들의 잼버리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불만족	조금 만족	만족	많은 만족	매우 만족
스케줄	9.4	15.1	28.3	26.4	22.8
시 설	11.3	16.0	24.5	18.9	29.2
지도력	13.2	13.2	24.5	30.2	18.9
홍 보	15.1	14.2	28.3	22.6	19.8
경 비	5.7	9.4	16.0	19.8	49.1
안전성	3.8	9.4	17.9	31.1	37.7

든가 “어디를 가야할지 모르겠다든가” 하는 등
홍보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었다.

5) 사용경비

프로그램 사용과정 중에 쓰여진 경비지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는 50%에 가까운 156
명이 「매우 만족한다」에 응답해, 대부분이 학
교나 국가 등에서 경비를 지원하였거나 조금의
비용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출에 비해서 시
설이 상대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응
답자들이 매우 높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

6) 주위환경

잼버리 프로그램의 진행 중에 주위환경의 안
전성여부를 묻는 문항에 있어서도 “주위에 차
량 등이 너무 많았다”는 지적을 제외하고는
80%이상의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 한국 및 한국청소년에 대한 인식

각국 청소년들의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 청소
년들에 대한 인식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지식이나
와 본 경험이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아주
부족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에 있어서도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갖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잼버리대회기간 동안에
날씨가 조금 좋지 않았던 것과 사람들과 차들
로 붐볐던 주위 분위기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로 분석된다.

잼버리대회에 같이 참가한 한국청소년들에
대한 인상에 있어서는 많은 비율의 외국 청소
년들이 한국스카우트 및 청소년들에 대해서 만
족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러
한 모든 결과들은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다시

<표 3>

외국 청소년들의 한국 및 한국 청소년에 대한 인식

	불만족	조금 불만	보통	조금 만족	매우 만족
한 국	5.0	47.5	35.0	7.5	5.0
첫인상	11.3	16.0	24.5	18.9	29.2
청소년	5.0	30.0	50.0	10.0	5.0

<표 4>

지도자가 인식한 청소년인구 중 무직, 미진학 청소년의 분포

단위 : %

독 일	프랑스	벨지움	미 국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2이하	6-10	10이상	10이상	10이상	2-5	10이상

오고 싶은가라는 문항에 많은 청소년들이 “다시 한 꼭 오고 싶다”던가, “한국에 올 수 있는 돈만 마련되면 오고 싶다”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한국이나 한국청소년에 대한 느낌이 아주 나쁘게 비쳐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III. 각국의 청소년정책

잼버리대회에 참석한 외국 청소년지도자들을 통해서 청소년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정책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 본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따르는 일이지만, 각국에서 청소년들을 실제로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각국 청소년지도자들에게 면담과 설문을 실시하여 각국의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선적으로 전체 청소년인구 중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직업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독일은 2%이하, 프랑스 6-10%, 벨지움 10%이상, 미국 10%이상, 캐나다 10%이상, 뉴질랜드 2-5%, 남아프리카 공화국 10%이상 등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되는 국가들의 10%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직업을 가지지 못한 이유로는 약물, 실업, 가정불화, 빈곤, 부족한 시설, 무관심, 동기의 부

족 등을 들고 있었으며, 이 중 실업과 가정불화 등이 보다 중요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꼽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요보호청소년집단에 대한 각국 정부나 사회의 대책으로는 사회사업, 재정적 지원, 학교제도의 개선, 실업지원대책 등을 들고 있었다.

한편,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해가 되

<표 5> 지도자가 인식한 요보호청소년집단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대책

독 일	사회사업, 재정지원
프 랑 스	국가지원금, 주거지제공
벨 지 움	소득기회창출
미 국	사회사업, 청소년단체육성
캐 나 다	학교제도개선, 복지정책, 동기화, 실업지원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실시
뉴 질 랜 드	실업대책, 학교제도개선, 장애자복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빈민구호금제도, 실업보험

<표 6> 지도자가 인식한 비행청소년을 재교육 시키기 위한 주요한 방법

독 일	지역사회사업, 직업훈련
프 랑 스	선도 및 제재
벨 지 움	정부관련 수용소에 수용
미 국	재활원에 수용
캐 나 다	학교 및 사회프로그램 개선, 카운셀링, 재활원수용, 지역사회사업
뉴 질 랜 드	법적 제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학교제도의 개혁

거나 위협스러운 사회환경으로는 대부분 국가의 지도자들이 약물, 알콜, 가정불화, 외설물, 실업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었으며, 각종 홍보활동과 캠페인, 청소년상담, 사회사업, 클럽활동의 증진, 직업알선 등을 통하여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학교 및 사회프로그램개선, 재활원교육 등을 통하여 재교육시키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IV. 평가 및 기본계획에 대한 시사

강원도 고성군에서 열린 제 17회 세계잼버리 대회는 한국의 청소년활동과 정책사상 유례없는 133개국에서 2만여명의 참가 청소년과 운영인원 및 청소년관련기관의 광범위한 참여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청소년들과 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러 관련단체 및 기관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진 행사였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잼버리대회에 대한 외국 청소년 및 지도자의 인식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활동에 대한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의 운영과 그 결과는 우리나라의 현행 청소년활동과 정책에 대한 반성 및 장래 청소년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잼버리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기본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잼버리프로그램평가

1) 개요

프로그램은 주변의 자연조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연행사, 산악활동, 수상활동,

해상활동 등 약 52종에 걸쳐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어 청소년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프로그램의 종류는 크게 행사성 프로그램과 과정활동 프로그램, 분단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졌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사성 프로그램

특별행사 : 종교의식, 범스카우트 관광, 설악축전 등.

공연행사 : 개·폐영식, 한국의 밤, 국제친선의 밤 등.

전시행사 : 지구촌개발, 민속전시, 사진콘테스트, 자연학습장 등.

-과정활동 프로그램

수상활동 : 낚시, 윈드서핑, 카누, 인명구조.

해상활동 : 파도타기, 요트, 스킨타이빙, 수영 등.

산악활동 : 암벽등반, 하이킹, 오리엔티어링, 비박 등.

일반활동 : 민속, 개척물 제작, 컴퓨터, 공예, 사격, 장애활동, 지역사회봉사 등.

특수활동 : 페러글라이딩, 오토바이, 챌린지 벨리, 모터글라이딩, 열기구 등.

선택활동 : 스킨 오하마, 유적답사 등.

-분단 프로그램

분단이름과 관련되는 역대 세계잼버리 개최연맹에서 당시의 특징적인 프로그램 1종목씩을 프로그램으로 설치, 운영하는데 모든 참가자가 참가할 수 있으며, 16개 분단 프로그램 중 3개 종목 이상을 이수하면 정식 과정활동 1종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행사성 프로그램

행사성 프로그램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종류에 있어서 과거 어느 세계 잼버리대회보다 우수하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행사성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그램은 개·폐영식 및 지구촌 개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사전의 철저한 준비와 「세계는 하나」라는 대회의 주제를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반영한 데에 기인한다.

다만 한국을 소개하는 기회인 「한국의 밤」이 폭우로 인하여 취소됨으로써 애써 준비한 관계자 및 외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아쉬움을 보였다.

전시행사 중에는 간이 자연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관심을 끌었는데 동물이나 곤충의 소리들을 녹음하여 해당 동물이나 곤충표집에 연결된 단추를 누르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 장치는 기발한 것으로 평가되어 많은 대원들의 주의를 끌었다.

3) 과정활동 프로그램

과정활동 프로그램은 그 종류가 역대 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37종(호주에서 열린 제 16회 대회 때는 20여종이었음)에 이르렀으나 운영상의 문제점, 시설, 배치의 문제, 안전도 등의 문제에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

과정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활동티켓을 대원들에게 배부하여 하루 1-2종의 과정활동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악천후 등으로 티켓에 배부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티켓의 효력을 상실하여 대부분의 대원들이 평균 9.75종의 활동 밖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외에 대원들이 보다 많은 활동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로는 선호도가 높은 특정 활동에 몰리는 경향과 활동장이 숙소로부터 지나치게 먼 곳에 위치하는 것 등이 있다고 보여진다.

활동의 종목별로 볼 때 외국의 지도자와 대원들은 챌린지 벨리와 산악활동, 수상활동, 해상활동의 대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으나 페러글라이딩, 열기구, 스쿠버다이빙, 울트라라이트 등은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울트라라이트의 경우에 있어 지상에서 적어도 150M 이상의 높이에서 비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20M 까지 운행하도록 한 것은 안전도를 무시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또한 페러글라이딩의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대원들이 안전규칙을 숙지하지 못하고 활동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사격, 오토바이, 쾌속항해 등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았으나, 지도자들은 그러한 종목이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민속놀이 활동과 공예, 장애활동과 같은 일반활동은 외국의 지도자들과 대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참여자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보다는 단순한 기술훈련에 머물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4) 분단활동 프로그램

분단 야영장 부근의 분단광장에서 이루어진 분단활동은 이번 대회의 유일한 실패작으로 평가된다.

그 원인은 상의하달식의 운영체제와 프로그램 진행상의 언어능력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세계잼버리대회에서 국제친선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던 분단과정이 크

게 위축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본계획에 대한 시사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청소년수련활동부분, 청소년복지부분, 청소년교류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겠다.

첫째, 청소년활동 부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균형있게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대회 프로그램(수련거리)은 초기의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운영부측의 헌신적인 노력과 컴퓨터를 통한 과학적인 운영 등 활동참여에 큰 차질없이 무난히 운영되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잼버리 운영부는 한국의 풍물과 전통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민속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각국 대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풍물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악활동, 수상활동, 해양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펼칠 수 있는 적지의 선정 등이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안전성이 결여된 프로그램과 단순 흥미위주의 비교육적인 프로그램의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국 지도자들을 통해서 직접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청소년들은 스포츠분야를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 매우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분야의 프로그램 제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덕성과 품성을 기를 수 있는 스포츠분야 이외의 문

학과 민속, 봉사 등의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수련터전의 설치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특성과 주위환경을 고려한 수련터전의 구조 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번 대회의 야영지 선정은 성공적이었으나 동선계획이 잘못되어 대원들이 활동장과 활동장 사이, 활동장과 숙소 사이를 오갈 때 너무 멀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여 가끔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3) 특정 단체나 집단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인 계획을 통해 가능한 많은 활동에 청소년이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가령, 이번 대회의 프로그램운영은 대원들의 선호에 따라 매일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대원들은 하루 1-2개 종목의 프로그램 밖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루 4개 종목을 선정하여 전 대원이 로테이션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 8일 동안 전 대원이 32개 종목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청소년지도자에 있어서도 활동청소년을 고려한 다양하며 각 부분에 적절한 지도자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번 대회에서는 지도자가 의사전달을 잘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단체활동 중에 언어소통의 문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활동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지도자가 지도자가 배치되었다고 평가된다.

둘째, 청소년 복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 상황과 그들의 의식 및 생활실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외국청소년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청소년 중에서 주로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의 10%이상의 청소년들이 비진학이거나 미취업상태에 있었고, 그 이유가 대개 무관심, 동기부족, 가정빈곤, 가정불화, 학교시설의 부족 등 이었다. 국가별로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청소년들의 의식이 다름으로 인해서 한국 청소년에 있어서는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른 청소년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정·지역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로 되고 있다.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회의 올바른 인도 없이는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지기 마련이다. 많은 국가의 청소년들이 가정불화를 비진학의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가정에서의 온정 및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사회분위기의 정화 없이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대부분 국가의 청소년들이 약물이나 알콜, 외설물들의 홍수 속에서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은 다시금 가정 및 지역사회와 새롭고 적극적인 변신을 요구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대중매체가 건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정신과 신체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사회병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또한 청소년들

을 올바르게 인도하는데 앞장선다는 시각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의 편중되고 상업주의적, 황금만능주의적 활용은 대중매체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정서와 신체를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건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청소년들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적·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청소년들의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대외기간 동안에 날씨가 좋지 않았던가 사람들이나 차들이 너무 많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 한국인 및 한국 청소년에 대한 편협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사물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청소년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갖는다는 등, 외부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있어야 한다면 하는 등의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상의 것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 청소년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